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과 그 의미

곽장근*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가야 봉화 현황과 추정 봉화로 | 참고문헌 |
| 3. 봉화대의 구조 및 최종 종착지 | <Abstract> |
| 4. 문헌으로 본 가야 봉화 역사성 | |

국문초록

문헌에 반과국은 봉후(화)를 이용하여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르고 신라 변방에 커다란 피해를 준 가야 소국으로 등장한다. 이제까지 전북 동부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로 가야 봉화의 구조와 봉화체제도 상당부분 복원됐다. 본래 반과국의 영역은 금강유역의 장수군과 진안군 상전면·동향면·안천면, 무주군 무주읍·안성면·적상면·부남면·설천면으로 금강에서 백제와 남대천에서 신라와 국경선이 형성됐다.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한동안 정치 불안에 빠지자 백제 영역인 진안군과 충남군 일대로 진출했고, 최전성기에는 금남정맥을 넘어 완주군 동북부까지 진출하여 금남정맥에서 백제와 국경을 마주했다.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 대사를 두고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르면서 남원시와 입실군, 순창군 등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여 섬진강유역에도 가야 봉화망을 구축했다. 가야 봉화망으로 반과국의 섬진강유역 진출을 뒷받침해 주었다.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을 문헌에 접목시켜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를 반과국으로 비정했다.

주제어 : 백제, 신라, 반과국, 장수가야, 가야 봉화, 봉화망, 봉화체계

*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역사전공 교수, E-mail: gjk425@hanmail.net

1. 머리말

가야사 국정과제로 전북 동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봉화망에 근거를 두고 전북가야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²⁾ 전북가야는 가야의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가야 고총 360여 기와 햇불로 신호를 주고받던 120여 개소의 봉화(烽火)³⁾로 상징된다. 전북가야의 용어에는 가야사 국정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전북가야의 영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제철유적은 250여 개소에 달한다.⁴⁾ 우리나라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봉수(烽燧)는 낮에 연기와 밤에 햇불로써 변방의 급박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제도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통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개인 정보를 다루지 않고 오직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 기능만을 전달했다. 봉화 혹은 봉수는 통신유적의 백미로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영역과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가야 봉화와 조선 봉수가 병존한다.⁵⁾ 다행히 가야사 국정과제 학술발굴로 가야 봉화의 실체가 밝혀졌다.

『삼국유사』에 가락국 시조 수로왕이 봉화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삼국사기』에 백제 온조왕 10년 봉현을 비롯하여 봉산, 봉산성 등이 등장한다. 『일본서기』에는 가야 소국 반파가 513년부터 515년까지 3년 동안 백제와 전쟁을 치르면서 봉후(烽候)를 운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야 봉화의 존재와 함께 반파국의 봉후(화)제가 운영됐음을 살필 수 있다. 7세기 초 백제 무왕이 백두대간 산줄기를 넘어 운봉고원으로 진출할 때 봉잠(烽岑)도 등장한다.

고려 의종 3년(1149) 서북면병마사 조진약이 봉수의 거화수를 규정하고 봉수군에게 생활의 대책을 마련하는 상소를 올렸다. 우리나라에서 봉수제의 시작이 고려시대로 굳어진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중국

2)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전북연구원, 2018, 36~75쪽.

3) 삼국시대 가야 봉화대는 길이 8m 내외의 봉화대와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 봉화대를 보호하던 테피식 성벽, 물을 저장하던 집수시설, 봉화군의 주거 공간 등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4)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 현황조사』, 전라북도, 2019, 176~229쪽.

5) 전북 동부에 봉화산과 봉화봉, 봉화골, 봉화재, 봉우재, 봉우재봉, 봉화산성 등의 지명들이 있는데, 1990년대부터 시작된 가야 봉화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그 수가 120여 개소로 늘었다.

사신의 배가 흑산도에 도착하면 밤에는 산 정상에서 봉수를 밝히고 여러 산들이 차례로 호응하여 왕성까지 이르는데, 이것은 흑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기록⁶⁾되어 봉수의 존재를 알렸다.

조선시대 봉수제는 세종 때 고려의 봉수제를 바탕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참조하여 거화·거수 등 관계 규식을 다시 새롭게 정비했다. 그리고 국경 및 변방의 연대를 다시 축조한 뒤 전국의 봉수선로를 일제히 확정했다. 우리나라 봉수제가 가장 체계적으로 정비된 최전성기로 조선 전기의 안정기를 이끌었다. 전북 동부 가야 봉화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학계에 보고된 봉수는 대부분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연산군 10년 일시적으로 봉수제가 잠시 폐지됐다가 중종 때 다시 복구됐다. 선조 때 봉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파발제를 도입하여 봉수의 역할이 크게 축소됐고, 숙종 때 봉수 변통론으로 전국 각지의 봉수 재편이 단행됐다. 가야 봉후(화)는 조선 봉수와 그 구조가 확연히 달라 봉화라는 용어로 통일한 뒤 조선시대 봉수제를 가야 봉화제로, 연대를 봉화대로, 거화시설 혹은 발화시설을 봉화시설 또는 봉화구로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전북 서해안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봉수⁷⁾는 조선시대 5봉수로 중제5거에 해당하는 연변봉수이다.⁸⁾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다가 군산 점방산 봉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충남 서천 운은산 봉수로 이어져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진 간봉이며,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공주의 충청감영을 경유하던 직봉이다. 바닷길을 따라 배치된 봉수는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등대 역할도 담당했다.

고려 말의 봉수선로를 계승하여 조선 초기에 정비된 5봉수로의 직봉과 간봉이 통과하지 않는 전북 동부는 우리나라에서 봉화산이 가장 많이 자리한다. 전북가야의 영역에서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가 그 존재를 드러냈다. 현재까지 여덟 갈래 가야 봉화로가 복원됐고, 모든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고,⁹⁾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 추정 왕궁 터와 장수군 일원

6) 조동원·김대식·이경록·이상국·홍기표, 『고려도경』, 황소자리, 2005, 431~432쪽.

7) 고창 구시포, 부안 호고리·점방산, 김제 길곶, 군산 점방산·오성산 봉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군산 어청도 봉수 등 5개소 내외의 봉수가 전북 서해안에 더 자리하고 있다.

8) 조명일, 「서해지역 봉수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도서문화』 제45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5, 63~100쪽.

9) 조명일,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湖南考古學報』 제41號, 湖南考古學會, 2012, 67~90쪽.

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산재해 있다.

가야사 국정과제로 가야 봉화의 역사성을 검증하기 위한 학술발굴이 시작됐다. 그 결과 조선 봉수와 확연히 다른 가야 봉화대의 유형과 봉화시설의 구조가 파악됐으며, 가야 봉화망으로 백제와 신라, 가야의 역학관계도 규명됐다. 장수 영취산·원수봉·봉화산·봉화봉·삼봉리 산성, 남원 봉화산, 임실 봉화산, 무주 노고산 봉화, 완주 천호산성 봉화시설에서는 장수군 가야계 분묘유적 출토품과 동일한 가야토기가 출토되어,¹⁰⁾ 그 운영 주체가 장수가야¹¹⁾로 고증됐다.¹²⁾

문헌에서 봉후(화)제를 운영한 반파국 비정¹³⁾은 역사고고학의 범주에 속한다. 문헌의 내용이 유적과 유물로 입증되면 학계의 논의가 시작되고,¹⁴⁾ 이를 근거로 결론 도출도 가능하다.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을 정리 분석하여 가야 봉화로를 복원한 뒤 다양하고 풍부한 고고학 자료를 문헌에 접목시켜 반파국의 위치를 비정하려고 한다. 향후 전북 동부 가야 봉화 및 조선 봉수¹⁵⁾에 대한 역사 인식의 제고와 함께 학제 간 혹은 지역 간 융복합 연구¹⁶⁾가 요청된다.

2. 가야 봉화 현황과 추정 봉화로

전북 동부는 고려·조선시대의 봉수제와 전혀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봉화산이 상당히 많다. 종래의 지표조사를 통해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가 발견됐는데, 봉화는 전북의 가야계 문화유적이 자리하고 지역에만 배치되어 있

10) 아직까지 전형적인 고령양식 혹은 대가야양식 가야토기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1) 종래에는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 세력 혹은 진안고원의 장수권 가야 계통 국가 단계의 정치체, 장수지역의 가야, 장수가야로 불렀는데, 이 글에서는 여덟 갈래로 복원된 봉화로에 그 근거를 두고 문헌의 반파국으로 비정했다.

12) 박장근, 2020,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 연구』, 제2집,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1~34쪽.

13) 李道學,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제90집, 호서사학회, 2019, 47~82쪽 ;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 연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0, 35~75쪽.

14) 종래의 반파국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함양·운봉설, 고령설, 성주설, 장수설 등이 있다. 문헌에 등장하는 반파국 봉후(화)는 전북 동부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냈다.

15) 조선시대 봉수는 남북한 모두 합쳐 700여 개소에 달한다. 전국을 다섯 갈래 길로 나누어 나라를 굳건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16) 최인선,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만과 그 의미에 대한 토론문』,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87~88쪽.

다. 전북 동부에서 가야 봉화를 찾고 알리는 프로젝트는 문헌조사와 면담조사, 현지조사, 추가조사 등 네 단계로 진행됐다.

우선 문헌조사는 문헌과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 분석하는 단계이다. 조선 봉수는 문헌 기록이 풍부하고 유적의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전북 동부 가야 봉화는 반과국이 513년부터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를 때 봉후(화)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전부이다. 다만 봉화산과 봉화봉, 봉화골, 봉화재, 봉화산성, 봉우재봉 등의 지명이 그 존재를 암시해 주었다.

다음으로 현지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면담조사이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역 내 봉화산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전북 동부로 7개 시군에 골고루 산재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1500년 전 봉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져 봉화를 찾는데 큰 힘이 됐다. 현지 주민들의 제보는 봉화를 찾아 봉화로를 복원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모든 지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지조사이다. 문헌 및 면담조사의 내용을 정리 분석한 뒤 몸소 유적을 찾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북 동부를 제외하면 가야 봉화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북 동부에서 한 개소의 가야 봉화를 찾는 현지조사는 끝없는 도전과 탐험의 연속이다. 지금까지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를 찾았지만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야 봉화 찾기 프로젝트에서 화룡점정과 같은 추가조사이다. 가야 봉화는 문헌 기록이 없고 유적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대부분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순창 채계산, 진안 서비산 봉화는 세 차례의 추가조사를 더 실시한 뒤 그 존재를 학계에 알렸다. 이처럼 지표조사에서 가야 봉화로 결론을 도출하려면 몇 가지 속성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일단 산봉우리 정상부에 길이 8m 내외의 방형 혹은 장방형 봉화대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성벽의 존재여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는 주거공간과 관련된 평탄지와 집수시설의 흔적도 확인되어야 한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지표조사를 실시했다라도 가야 봉화로 최종 결정짓는 것은 발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헌에 가야 소국 반과국이 기문, 대사를 두고 백제와 3년 전쟁을 하면서 봉후(화)를 이용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딘가에 삼국시대 가야 봉화가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가야 봉화가 전북 동부에서만 학계에 보고되어¹⁷⁾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 동부에서 그 존재를 드

17)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분포양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남고고학회, 2004, 146~1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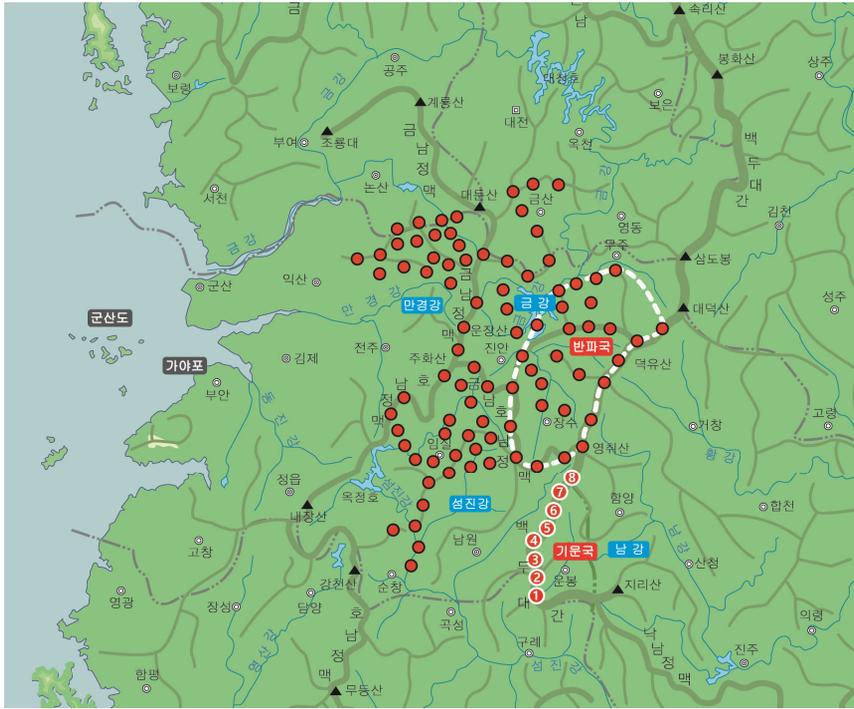


그림 1.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과 운봉봉화로(① 덕천리 ② 준향리 ③ 고남산 ④ 아곡리 ⑤ 시리봉 ⑥ 매봉 ⑦ 봉화산 ⑧ 무명봉 봉화)

러난 가야 봉화대의 현황과 그 특징을 수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남강유역은 운봉고원으로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8개소의 봉화대가 산성과 세트관계를 이루면서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¹⁸⁾ 남원 봉화산 봉화대는 장방형 봉화대에서 가야토키편이 출토되어, 그 성격이 가야 봉화대로 밝혀졌다. 남원 시루봉 봉화대는 산봉우리 정상부에 성벽을 한 바퀴 둘렀는데, 다른 봉화대는 성벽을 두르지 않았다. 운봉고원에서 전남 곡성과 구례, 경남 하동 등 남해안으로 갈 때 대부분 넘었던 구동치 부근에 위치한 남원 덕치리 봉화대는 운봉봉화로가 시작되는 곳이다.

금강유역은 신라의 진출이 확인된 구역을 제외하면 70여 개소의 봉화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장수군과 진안군, 무주군, 완주군 운주면, 충남 금산군이 금강유역을 이룬다. 전북 동부에서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 중 다섯 갈래 봉화로가 금강유역을 통과한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성 내 봉화시설이 여

18) 강원중, 『남원 운봉지역의 고대 관방체계』, 『호남고고학보』 27, 호남고고학회, 2007, 43~74쪽.

덥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다. 장수 봉화산·영취산·원수봉·침곡리 봉화대를 대상으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유물은 6세기를 전후한 삼국시대 토기편만 출토됐다. 백제 혹은 신라의 국경선과 전략상 요충지에 배치된 석축형 봉화대는 테피식 성벽을 둘렀다.

섬진강유역은 상류지역에서만 20여 개소의 봉화대가 발견됐다. 진안군 남부 권과 임실군, 순창군이 섬진강유역을 이룬다. 모두 세 갈래 봉화로가 섬진강 상류지역을 가로질러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봉화대는 흙 또는 자연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은 봉화대로 나뉘는데, 다른 유역과 달리 거칠고 조잡하다. 임실 봉화산은 앞쪽이 둥글고 뒤쪽이 네모난 봉화시설이 발견됐는데, 진안 서비산 봉화대에서도 자연 암반을 똑같은 모양으로 파낸 봉화구가 조사됐다.¹⁹⁾ 섬진강유역에 석축형과 암반형, 토축형이 공존한다.

2018년 만경강유역에서 산성 및 봉화대, 제철유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북 동부에서 단일 지역 내 관방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완주군 동북부²⁰⁾ 일대로 관방유적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은 반파국이 백제와 국경을 마주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1500년 전 반파국이 완주군 동북부 일대로 진출하여 금남정맥²¹⁾을 따라 잠깐 동안 백제와 국경이 형성됐음을 말해준다. 완주 봉수대산 봉화대 등 20여 개소의 봉화에 그 근거를 두고 완주군 동북부 일대를 전북가야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봉화대는 대부분 흑운모 편마암을 가지고 허튼층쌓기로 쌓은 석축형으로 성벽에 봉화시설²²⁾을 배치한 경우²³⁾도 있다.

금남정맥은 금남정맥 금만봉에서 시작해 왕사봉을 거쳐 불명산과 천호산, 미륵산, 함라산, 최종 종착지 장계산까지 이어진다. 삼국시대 산성 및 봉화대의 분포망을 근거로 전북과 충남의 경계를 이룬 금남정맥에서 한동안 반파국과 백제의 국경이 형성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남정맥 산줄기를 따라 서로

19) 장수군 내 가야 분묘유적 출토품과 흡사한 가야토기만 출토되어 반파국 봉화대로 명명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형적인 대가야양식이 아닌 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가야토기라는 것이다.

20) 완주군 고산면·경천면·비봉면·화산면·동상면·운주면이 여기에 해당된다.

21) 금강과 만경강 분수령이자 전북과 충남 경계를 이룬다. 금남정맥 금만봉에서 시작해 왕사봉을 거쳐 불명산과 천호산, 미륵산, 함라산, 최종 종착지 장계산까지 이어진다. 『산경표』에 실린 15개의 산줄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진정한 금남정맥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전북과 충남 도계를 이룬 금남정맥 산줄기를 따라 산성 및 봉화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2) 완주 종리산성 북쪽 성벽 위에서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이 발견됐는데, 봉화시설은 두 개의 장대형 석재를 10cm 간격으로 나란히 놓았다. 장방형 석재와 그 주변이 붉게 산화되어 봉화대가 얼마간 이용됐음을 알 수 있다.

23) 완주 종리·용북리·천호산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4km의 거리를 둔 장재봉·큰남당산·까치봉에 추정 봉화시설이 발견됐다. 한국 동란 때 참호를 만들면서 봉화대가 심하게 훼손되어 그 구조를 살필 수 없지만 완주 성태봉·천호산성 내 봉화시설과 연결된다.

전북 동부 가야 봉화는 세 가지 속성에서 공통성을 보였다. 하나는 장수군 장계분지로 향하는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국경선을 따라 봉화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산봉우리 정상부에는 장방형 봉화대를 만들고 석성을 한 바퀴 둘렀는데,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는 주거공간이 자리한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성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여덟 갈래 봉화로를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두대간을 따라 이어진 운봉봉화로이다. 운봉고원은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밀집 분포된 대규모 철산지이다.²⁴⁾ 백두대간이 운봉고원 서쪽 자연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구동치·입망치·여원치·사치·치재 등 백두대간 고갯길이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산성 및 봉화가 세트관계를 보이면서 배치됐다. 백두대간을 따라 선상으로 이어진 운봉봉화로는 봉화산에서 그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섬진강유역 봉화대와 흡사하게 거칠고 조잡하게 봉화대를 쌓았다.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반파국을 이어주던 옛길을 조망하기 위해 운봉봉화로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나제통문 서쪽 무주봉화로이다. 무주 노고산²⁵⁾에서 출발해 봉화산 봉화대를 거쳐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렇지만 신라 무산현²⁶⁾의 행정 치소이자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으로 상징되는 무주군 무풍면 일대에서는 한 개소의 봉화대도 발견되지 않았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혼란에 빠지자 신라는 백두대간을 넘어 대규모 철산지 무주군 일대로 진출했다. 신라와 국경을 맞댄 반파국은 신라의 동향을 살피고 무주군 제철유적을 방비하기 위해 무주봉화로를 운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충남 금산분지를 종단하는 금산봉화로이다. 대전시 중구와 충남 금산군 경계에 위치한 금산 만인산 봉화대에서 시작한다. 삼국시대 관방유적과 통신유적, 생산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곳이 금산분지로 1963년 전북에서 충남으

24) 유영춘,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호남고고학보』 제51집, 호남고고학회, 2015, 86~121쪽.

25) 금강 남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로 웅진기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오갔던 사행로가 강을 건넌던 나루터가 있었던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가 한눈에 잘 조망된다.

26)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지명 및 행정구역 개편 때 무풍이라 고쳐 開寧郡 영현이 됐다. 『鄭鑑錄』에 삼재를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 가운데 하나이다.

로 편입됐다. 만인산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향하다가 금산 봉수치 봉화대에서 그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 금산분지 중앙을 남북으로 종단한다. 진안 성치산 봉화대에서 방향을 동남쪽으로 바꾼 뒤 봉화산을 지나 진안 용담댐 동쪽 진안 지장산 봉화대에 도달한다. 진안 와정토성과 황산리 고분군이 한눈에 잘 조망되는 진안 망바위 봉화대를 거쳐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넷째, 만경강유역에서 시작하는 완주봉화로이다. 금강과 만경강유역에서 진안고원으로 향하는 여러 갈래 옛길이 하나로 합쳐져 금남정맥 작은 싸리재를 넘는다. 완주군 비봉면과 익산시 여산면 경계에 위치한 천호산성²⁷⁾에서 각시봉·불명산 봉화를 거쳐 탄현²⁸⁾ 봉화대까지 완주군 동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른다. 완주 탄현 봉수(화)대에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금산분지 서남부를 경유하여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멈춘다. 진안 봉우재 봉화대를 경유하여 지명으로도 가야 봉화의 존재를 알렸다. 장수군과 진안군 경계를 이룬 방곡재²⁹⁾ 봉화대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장수 침곡리 봉화대에 도달한다.

다섯째, 완주 봉실산성에서 출발하는 진안봉화로이다. 만경강유역 교통의 중심지 완주 봉림산 봉화대에서 대아저수지 북쪽 완주 운암산 봉화대를 거쳐 진안 운장산 봉화대에 당도한다. 금남정맥 산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진안 건천리 봉화대에서 그 방향을 동남쪽으로 바꾼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 고갯길이 한눈에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자리하여 만경강유역을 감시할 목적으로 진안봉화로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 최상류 진안군 마령분지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금남호남정맥 신평치를 통과하는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이어지다가 장수 봉화산 봉화대에서 멈춘다.

여섯째, 임실 성미산성에서 출발하는 관촌봉화로이다. 몇 차례 수축된 임실 성미산성에서 가야토기가 나온 것은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했던 반파국이 산성의 터를 닦았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 산성 내 정상부가 상당히 넓고 평탄하게 다듬어져 본래 봉화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임실 성미산성에서 서남쪽으로 4km 거리를 두고 임실 범마우산 봉화대와 다시 동쪽으로 일정한 거

27) 현지조사 때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삼족토기편이 수습됐으며, 북쪽 산봉우리에서 방형의 봉화시설도 확인됐다. 반파에 의해 초축된 뒤 백제 혹은 후백제 때 다시 개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28)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삼거리마을 북쪽에 위치한 고개로 달리 炭岨으로도 불린다. 충남 부여, 논산 일대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진안고원과 금산분지 방면으로 향하는 세 갈래 옛길이 교차하는 전략상 요충지에 위치한다.

29)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와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경계로 서쪽 산봉우리에 봉화대가 자리하고 있다. 본래 반파국 북쪽 경계로 방곡재 양쪽 산줄기를 따라 인위적인 방어시설이 잘 남아있다.

리를 두고 임실 고덕산, 진안 구신재 봉화대가 배치되어 있다. 임실 봉화산 봉화대에서 가야토기가 출토되어³⁰⁾ 잠깐 동안 섬진강을 경계³¹⁾로 백제와 반과국의 국경선이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섬진강 상류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임실봉화로이다. 전북 동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20여 개의 봉화대 중 가장 서북쪽에 임실 경각산 봉화대가 자리한다. 호남정맥 경각산에서 임실봉화대가 출발하는데, 경각산은 만경강유역 전주 일대가 한눈에 잘 조망된다. 임실 치마산 봉화대에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임실군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임실 봉화산을 거쳐 장수 원수봉 봉화대까지 이어진다. 임실 봉화산에서 흠으로 쌓은 장방형 봉화대와 봉화시설, 유두형 손잡이가 달린 개배 등 가야토기편이 출토됐다. 동진강 하구 가야포에서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오수천을 따라 동서로 이어진 순창봉화로이다.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말무재 봉화대를 중심으로 서북쪽에 생이봉 봉화대, 서남쪽에 채계산 봉화대와 오교리 산성 내 봉화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순창봉화로는 오교리 산성에서 출발해 오수천과 평행되게 선상으로 이어지다가 임실 노산 봉화대에서 그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 장수 봉화봉 봉화대까지 계속된다. 영산강유역에서 출발해 오수천을 따라 섬진강유역을 가로질러 장수군까지 이어진 옛길을 감시할 목적으로 순창봉화대가 배치된 것 같다. 다른 지역의 봉화대들과 달리 봉화대를 대부분 흠으로 축조됐고, 일부 돌로 쌓은 봉화대도 매우 거칠고 조잡하게 쌓았다.³²⁾

위에서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는 대체로 봉화와 봉화 사이의 거리가 4km 내외이다. 모든 봉화로는 그 운영 시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본래 장수군을 중심으로 금강 이남의 진안군과 남대천 남쪽 무주군 일원에 봉화망이 구축됐다. 반과국이 금강을 따라 백제와 무주군을 관통하는 남대천을 경계로 신라와 국경선이 형성된 것³³⁾ 같다. 그러다가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일시에 정치적 불안에 빠지자 이를 틈타 반과국이 금강을 건너 백제 영역으로 진출을

30) 전상학, 『임실 봉화산 봉화 출토유물 검토』,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23~38쪽.

31) 섬진강을 경계로 백제 산성으로 밝혀진 임실 대리·방현산성이 서쪽에 가야토기가 나온 임실 성미산성, 임실 범바우산 봉화가 동쪽 배치되어 있다.

32) 『일본서기』에 반과국이 백제와 3년 전쟁을 수행하던 중 자탄과 대사에 산성 및 봉화대를 쌓은 것으로 전한다.

33) 무주군을 동서로 관통하는 남대천을 중심으로 신라토기가 나온 무주 대차리 고분군과 무주고성이 북쪽에 반과국 산성에서 봉화시설이 배치된 무주 당산리 산성이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감행했다.

반파국 최전성기에는 금남정맥 산줄기를 넘어 만경강유역, 즉 완주군 동북부 일대로 진출하여 금남정맥에서 백제와 반파국의 국경선이 잠깐 동안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6세기 초 이른 시기 백제가 만경강유역을 탈환³⁴⁾함에 따라 국경선이 금남정맥으로 이동됐고, 섬진강유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임실·순창봉화로는 백제와 반파국 3년 전쟁 중에 봉화로가 구축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운봉봉화로도 봉화대의 축조기법에서 섬진강유역의 봉화와 그 속성이 상통한다.

3. 봉화대의 구조 및 최종 종착지

2013년부터 문화재청 긴급 발굴비를 지원받아 장수 영취산 봉화 등 가야 봉화대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이 시작됐다.³⁵⁾ 가야사 국정과정 일환으로 장수 봉화산 등 10여 개소의 봉화대 학술발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가야 봉화대의 구조와 봉화군이 머물던 주거공간도 확인되어 봉화의 역사성이 일목요연하게 고증됐다.

가야 봉화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³⁶⁾ 하나는 석축형으로 대부분 깎들로 봉화대를 만들었는데, 봉화대 벽석의 축조기법은 처음에 거칠고 조잡하다가 후대에 아주 정교하게 쌓았다. 다른 하나는 암반형으로 자연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고 불을 피우기 위한 원형 혹은 전원후방형 봉화구를 다시 파냈다. 또 다른 하나는 토축형으로 흙을 쌓아 봉화대를 만들고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을 두었다. 봉화대의 축조기법이 서로 다른 것은 축조시기를 의미하고 석축형이 가장 앞서고 암반형과 토축형이 늦다.

당시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은 모든 봉화대에서 한 개소만 확인됐다. 장대형 석재 2매를 10cm 간격으로 나란히 놓고 그 주변을 원형으로 두른 뒤 직경

34)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23년(501)에 “設柵於炭峴以備新羅”라는 기사가 그 가능성을 방증한다. 진안고원 무주군 일대로 이미 진출한 신라를 대비하기 위해 백제가 백두대간 덕산제로와 육십령로 분기점이자 진안고원으로 통하는 옛길의 길목인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탄현 일대에 목책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무렵 백제가 반파국으로부터 완주군 동북부 일대를 다시 찾았음을 알 수 있다.

35) 군산대학교 박물관,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장수군·문화재청, 2016.

36)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구조」,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39~58쪽.

100cm 내외의 경계석만 들렸다. 자연 암반을 파낸 봉화구는 원형 혹은 전방후원형으로 파냈는데, 봉화구의 직경이 큰 경우에는 남쪽에 자연 암반을 파내어 배수로를 두었다. 봉화시설에서 불 먹은 소토와 장대형 석재가 붉게 산화되어 봉화대가 얼마 동안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봉화대 남쪽에는 봉화대로 오르기 위한 계단시설과 자연 암반을 파낸 등봉시설도 확인됐다.

그런데 봉화를 올린던 가야 봉화대는 대부분 장방형으로 그 위치와 축조 재료에 따라 얼마간 차이를 보였다. 본래 반파국 영역이었던 장수군과 무주군 안성면·적상면·부남면, 진안군 상전면·동향면·안천면 일대 봉화대는 석축형으로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흑운모 편마암을 가지고 대부분 거칠게 쌓았다. 단지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봉화봉의 경우만 화강 편마암으로 벽석이 상당히 두꺼워 얼마간 차이를 보였다.

2021년 장수 봉화봉 봉화의 실체가 일목요연하게 파악됐다.³⁷⁾ 금남호남정맥 팔공산에서 갈라진 천황지맥에 봉화봉이 있는데, 이곳은 섬진강유역이 잘 조망된다. 봉화봉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고 길이 800cm의 방형의 봉화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동쪽과 서쪽 벽석은 상단부가 약간 무너져 내렸다. 봉화대는 화강암을 상당히 두껍게 다듬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내경되게 쌓고 벽석과 벽석 사이는 작은 깬돌 조각으로 메꾸었다.

봉화대 정상부에는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이 마련됐는데, 그 바닥에서 숯이 검출됐다. 북벽에 붙은 상태로 두 개의 기둥자리가 확인됐는데, 봉화대 위로 오르는 계단 시설과 관련된 기둥자리로 추정된다. 봉화대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평탄지에서 봉화군이 머물던 주거공간이 확인됐고, 북쪽에서는 불을 일으키는 데 쓰인 부싯돌이 수습됐다. 봉화대와 주거공간에서 밀집파상문이 희미하게 시문된 반파국에서 만든 가야토기편만 출토됐다.

한편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한동안 혼란에 빠지자 반파국이 전북 진안군과 충남 금산군 일대로 진출³⁸⁾하여 가야 봉화당을 구축했다. 석축형 봉화대는 대부분 흑운모 편마암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쌓았는데, 장수군 봉화대보다 더 정교하게 벽석이 축조됐다. 봉화산과 봉화골, 봉화재, 봉우재, 봉우재봉 등의 지명으로 봉화의 존재를 알렸다. 무주 당산리, 진안 봉우재봉 등 국경선 혹은 전략상 요충지에 배치된 봉화는 테피식 성벽을 들렸다.

반파국 최전성기에는 금남정맥 산줄기를 넘어 만경강유역으로 진출했던 것

37)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봉화봉 봉화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21, 장수군.

38) 금강과 정자천을 따라 반파국과 백제의 국경선이 형성됐는데, 웅진 천도 후 백제가 일시에 정치적 혼란에 빠지자 이를 넘어 백제 영역으로 진출했던 것 같다.

같다. 완주군 동북부에 집중 배치된 봉화대는 완주 운암산 봉화대를 제외하면 모두 흑운모 편마암으로 쌓았다. 석축형 봉화대의 벽석은 두께가 얇은 할석을 가지고 허튼층쌓기로 쌓고 벽석과 벽석 사이에는 소형 할석으로 메꾸었다. 완주 용복리·운제리·종리·천호산성 등 성벽에 봉화시설을 배치하여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 완주군 동북부는 가야 봉화와 산성이 세트관계를 이룬다.

섬진강유역 봉화대는 토축형·석축형·암반형이 공존한다. 임실 봉화산 학술 발굴에서 영정주와 함께 남쪽 기슭에서 봉화군이 생활하던 주거공간도 확인됐다.³⁹⁾ 장수 삼고리 가야계 분묘유적 출토품과 흡사한 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늦은 시기의 가야토기가 출토됐다. 임실 치마산, 순창 생이봉 봉화는 모두 석축형으로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을 가지고 허튼층쌓기로 아주 조잡하게 봉화대를 쌓았다. 514년 전쟁 중에 쌓았다는 문헌의 내용을 봉화대로 뒷받침해 주었다.

전북 동부에서 암반형 봉화가 가장 많은 곳이 섬진강유역이다. 진안 서비산 봉화는 자연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고 중앙에 봉화구와 서남쪽에 봉화대로 오르는 시설이 있다. 임실 범바우산 봉화는 자연 암반에 직경 90cm 내외의 원형 봉화구와 남쪽 기슭에 배수로가 마련됐다. 순창 채계산 봉화는 자연 암반을 장방형으로 파낸 봉화대를 마련하고 그 중앙에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을 두었다. 이 봉화대의 남쪽 기슭에 있었던 석축시설⁴⁰⁾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는 장수군 장계분지이다. 백두대간 큰 고갯길 육십령 서쪽에 위치한다. 금강 최상류에서 가장 넓은 평야가 발달한 곳으로 운봉고원과 함께 전북가야의 정치 중심지이다. 백화산에서 뺀 산자락 정상부에 12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과 추정 왕궁 터도 그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전북가야의 영역에서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함께 가야 정치체의 존재가 유적과 유물로 입증된 곳이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산줄기에서 갈라진 산자락이 장계분지를 사방에서 병풍처럼 감싼다. 장수 봉화산·침곡리·깃대봉 등 7개소의 봉화대가 장계분지를 빈틈없이 조망하고 있는데,⁴¹⁾ 그 중앙에 장수 삼봉리 산성이 위치한다. 여덟 갈래 봉화로에서 실어온 변방의 정보를 하나로 취합했던 곳⁴²⁾이다. 조선

39) 이은정, 『임실 봉화산 봉화 조사현황 및 성과』,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5~22쪽.

40)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원촌마을 주민이 무릎 높이까지 쌓은 석축이 있었다고 제보해 주었다.

41) 群山大學校 博物館, 『長水郡의 山城과 烽燧』, 長水文化院, 2002.

42)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시대 다섯 봉수로의 700여 개소 봉수의 정보를 마지막으로 합치는 서울 목멱산과 그 임무가 똑같다.

금남호남정맥 산줄기가 장수군을 금강과 섬진강유역으로 갈라놓는다. 백두대간 영취산⁴³⁾ 서쪽 산봉우리에서 갈라진 한 갈래 산줄기가 북쪽으로 계속되다가 백화산에서 잠시 머문 뒤 그 방향을 동북쪽으로 틀어 장수 삼봉리 산성까지 이어진다. 이 산성을 중심으로 서쪽에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고분군이 북쪽에 반파국 추정 왕궁 터로 알려진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이 있다. 반파국의 도읍지로 곧 추정 왕궁 터 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남산마을 주민들이 장수 삼봉리 산성을 달리 봉화봉으로 부른다. 문헌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산성의 의미와 그 역사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명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관심을 끈 것은 봉화봉으로 불리는 산성 북쪽에 반파국 추정 왕궁 터가 자리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한껏 높였다. 어떻게 보면 서울 목멱산 북쪽에 경복궁이 자리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2019년 장수 삼봉리 산성의 초축과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이 시작됐다. 장계분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장계천 남쪽에 장수 삼봉리 산성이 위치한다. 장계천과 평행되게 동서로 뻗은 산자락이 있는데, 이 산자락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봉화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봉화시설은 산봉우리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어 마련했는데, 당시 불을 피우던 봉화대는 그 평면형태가 동서로 긴 장방형이다.

장수 삼봉리 산성은 테피식으로 둘레 250m 내외의 성벽을 둘렀다.⁴⁴⁾ 성벽은 흑운모 편마암을 가지고 허튼층쌓기로 쌓고 성돌 사이에는 작은 돌을 끼웠는데, 성돌은 그 두께가 얇고 일정하지 않다. 전북 동부 봉화대와 산성의 축조기법이 서로 공통성을 보여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⁴⁵⁾ 봉화시설 북쪽 기슭에서 목 부분에 밀집과상문이 희미하게 시문되고 조잡하게 만든 대부광구호 등 가야토기편이 출토됐는데,⁴⁶⁾ 유물의 속성은 반파국 재지계와 상통한다.

2018, 90~107쪽.

43) 백두대간 명산으로 금남호남정맥이 시작되는 분기점이자 금강과 섬진강, 남강 분수령을 이룬다.

44) 全榮來, 『全北古代山城調査報告書』, 全羅北道·韓西古代學研究所, 2003.

45) 완주군 동북부 만경강유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20여 개소의 석축형 봉화대는 관석형 할석을 가지고 벽석을 쌓아 장수 삼봉리 산성 성벽 축조기법과 동일하다.

46)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장수 삼봉리 산성 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9, 장수군.

장수 삼봉리 산성 내 봉화시설은 당시의 시대상이 잘 녹아있다. 반파국이 산봉우리 정상부에 자연 암반을 다듬어 봉화시설⁴⁷⁾을 배치하고 성벽을 한 바퀴 돌렸다. 모든 봉화로에서 실어온 변방의 정보를 하나로 취합해 반파국 왕궁에 보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파국이 국력을 담아 봉후(화)제를 운영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중국 및 일본 문헌에 등장하는 반파국이 봉화 왕국이라는 사실을 유적으로 증명했다.

2021년 장수 삼봉리 산성 학술발굴에서 집수시설이 발견됐다.⁴⁸⁾ 봉화시설이 자리한 산봉우리 동쪽 기슭에 집수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직경 700cm, 깊이 120cm 내외이다. 계단식 집수시설은 자연 암반층을 파낸 뒤 두께가 얇은 편마암 계통 석재로 벽석을 허튼층쌓기로 쌓고 점성이 강한 점토로 견고하게 뒤채움 했다. 유물은 집수시설 퇴적층에서 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거칠고 조잡한 가야토기만 출토되어,⁴⁹⁾ 그 초축이 반파국으로 파악됐다.

반파국이 백제에 의해 멸망된 이후 6세기 중엽 경 전북 동부가 일시에 신라 영역에 편입된다. 장수 침령산성, 진안 운봉리 산성, 남원 아막성 발굴을 통해 신라의 진출이 검증됐다. 장수 침령산성은 본래 테포식으로 신라에 의해 4배 이상의 포곡식으로 증축됐으며, 성벽은 성돌의 두께가 얇고 바른층쌓기로 쌓았다. 장수 삼봉리 산성은 증축되지 않고 가야계 원형 집수시설 바닥에서 신라토기가 출토되어 신라의 진출이 유물로 입증됐다.

통일신라 때 봉화시설에 분묘유적이 조영됐다. 본래 봉화시설이 있었던 산봉우리 정상부에서 3기의 뼈단지⁵⁰⁾가 조사됐는데, 이곳은 풍수지리에서 최고의 명당이다. 뼈단지는 땅을 파거나 네 매의 판자모양 돌로 방을 만든 뒤 뼈단지를 두었는데, 당시에 봉화시설이 대부분 유실 내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8세기 전후한 시기 불교의 발전에 따른 화장문화의 유행으로 봉화시설이 무덤 구역으로 그 임무가 바뀌었다.

그러다가 후백제 때 누정이 산봉우리 정상부에 들어섰다. 산성 내 산봉우리 정상부에서 건물지의 기둥 구멍이 확인됐고, 장수 합미산성·침령산성 출토품과 흡사한 선문과 격자문이 시문된 후백제 기와편이 나왔다. 그리고 동쪽 기

47) 봉화시설 내 일부 석재가 붉게 산화되어 봉화시설의 존재와 봉화시설이 운영됐음을 반증해 주었다.

48)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장수 삼봉리 산성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장수군, 2021.

49) 전북 장수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 동부 가야 봉화대 및 산성에서 전형적인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지 않아 대가야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습 평탄면에서 차 있을 갈 때 쓰던 다연과 쇠스랑, 문고리, 장식 등 많은 철기 유물이 출토됐다. 후백제 이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쪽을 제외한 지형이 완만한 산기습에는 민묘가 대규모로 들어섰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 입구에 석탑과 석등 부재가 탐처럼 쌓여있다. 옛날 탑동마을에 개안사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곳은 풍수지리에서 최고의 명당이다. 2020년 시(발)굴조사에서 후백제 때 창건된 절이 후백제 멸망과 함께 문을 닫았다가 조선시대 재건된 것으로 밝혀졌다.⁵⁰⁾ 반파국 추정 왕궁 터 부근에 후백제 때 절이 들어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왕궁과 절터가 한 몸을 이룬 익산 왕궁리 유적과 역사적인 의미가 상통한다.

1500년 전 반파국이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국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당시에 국력의 원천은 철이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이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유적이다. 장수군은 또한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가장 많은 제철유적⁵¹⁾이 학계에 보고됐다.⁵²⁾ 반파국 등 전북 가야의 영역에서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어 그 역사성을 검증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요망된다. 반파국이 철의 생산과 유통으로 부국강병을 이룩한 뒤 전국에 가야 봉화망을 구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파국의 가야 봉화와 제철유적은 서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싶다.

4. 문헌으로 본 가야 봉화 역사성

가야 소국 반파국이 문헌에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己汶), 대사(帶沙)를 두고 백제와 전쟁을 할 때 봉후(烽)제를 운영한 것으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야 봉화가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전북 동부에서 가야 봉화가 그 존재를 드러냈으며, 임실 봉화산 등 10여 개소의 학술 발굴로 그 운영 시기가 삼국시대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야 봉화는 가야 고종 못지않게 가야 소국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 주는 고고학 자료이다.

50) 조선문화유산연구원, 『장수 개안[암]사지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장수군, 2020.

51) 이남규, 『제철유적 조사 연구상의 주요 성과와 과제』, 『최신 동북아시아 고대 제철유적의 발굴성과와 그 의미』, 2011. 이남규 외, 『한국 고대 철기문화 계통과 발전양상의 역사적 의미』, 한국연구재단, 2013.

52) 장수군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80여 개소로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중 그 수가 가장 많다.

전북 동부에서 그 실체를 드러낸 120여 개소의 봉화는 두 가지의 공통성을 보였다. 하나는 장수군 장계분지 방면으로 향하는 여러 갈래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산봉우리 정상부에는 장방형의 봉화대를 만들고 석성을 한 바퀴 둘렀는데, 산봉우리의 남쪽 기슭에는 상당히 넓은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돌로 연대를 쌓고 그 위에 연조를 설치했던 내지봉수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불을 피우던 5개의 연조와 불을 피우기 위한 재료를 보관하던 고사, 연대와 연조 주위를 두른 방호벽으로 구성된 조선시대 내지봉수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전북 동부 봉화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는데, 이곳은 여덟 갈래로 복원된 가야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반파는 자탄과 대사에 성을 쌓아 만해에 이어지게 하고 봉후(烽候)와 저각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했다. 또한 이열비와 마수비에 성(城)을 쌓아 마차해·추봉에까지 뻗치고 사졸과 병기를 모아서 신라를 꺾박했다. 자녀를 몰아 잡아가고 촌읍을 벗겨 빼앗아가니 적의 힘이 가해진 곳에는 남는 것이 드물었다. 무릇 포악하고 사치스럽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배어 죽임이 너무 많아서 상세히 적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일본서기』 계체천황 8년 3월조).

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야 소국 반파국이 대규모 축성과 봉후제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아직은 문헌의 공간적인 범위를 단정할 수 없지만 전북 동부에서 봉화가 배치된 지역과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곡성군 동북부 등 섬진강 중류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섬진강 중류지역은 한 개소의 봉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북 동부에서 산성의 밀집도가 월등히 높고 산성의 축성 기법도 긴밀한 공통성을 보였다.

문헌에서 대사의 위치 비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일제강점기 금서룡⁵³⁾이 대사와 다사가 동일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그 위치를 경남 하동으로 비정한 주장⁵⁴⁾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백제가 513년부터 3년 동안 반파

53) 今西龍, 「己汶伴跋考」,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22.

54) 김태식, 앞의 책 1993 ; 李永植,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 7, 駕洛國史

와의 공방에서 승리를 거둔 뒤 기문과 대사는 백제의 영향권으로 편입시켰지만, 섬진강하구의 다사진은 529년까지 여전히 가라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사와 다사가 각각 다른 지역을 가리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서기』에도 370년 다사성⁵⁵⁾과 529년에 다사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백제와 반과국이 기문과 대사를 두고 공방을 벌일 때만 대사, 대사강이라는 지명으로 등장한다. 운봉고원 기문국 못지않게 대사도 당시 거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섬진강 내륙수로와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이 교차하면서 웅진기까지 지방 거점을 이룬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일대를 대사로 경남 하동군 하동읍을 다사로 비정하고자 한다.

남원 사석리 고분군 두 차례 학술발굴을 통해 그 개연성이 검증됐다. 2020년 가야사 국정과제로 남원 사석리 8호분 학술발굴이 마무리됐다. 이 무덤은 반지하식 횡혈식 석실분으로 직경 12m의 봉분 중앙부에 석실이 마련됐다. 석실은 장방형으로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깎은 돌로 양쪽 장벽이 약간 내경되게 쌓은 뒤 3매의 판석형 할석으로 덮었다. 석실의 규모는 길이 347cm, 너비 185cm, 높이 167cm이다.

백제 중앙 묘제의 상징으로 알려진 관대가 석실 바닥 중앙에 마련됐는데, 그 규모는 길이 262cm, 너비 113cm, 높이 13cm이다. 석실 남벽 중앙에 높이 91cm, 너비 66cm로 현문이 마련됐다. 연도는 밖으로 약간 벌어진 팔(八)자형으로 길이 120cm이며, 배수로는 현문에서부터 길이 315cm로 만들었다. 1990년대 도굴로 유물은 석실의 동벽과 북벽이 만나는 바닥에서 3점의 뚜껑과 관정 2점이 출토됐다.

남원 사석리 8호분은 섬진강유역의 위상과 그 역사성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하나는 마한과 백제 묘제가 하나로 응축됐고, 다른 하나는 백제 무왕이 잠든 익산 쌍릉 대왕묘에 이어 전북에서 두 번째로 석실의 길이가 크다. 또 다른 하나는 피장자의 시신을 모신 관을 없었던 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분의 구조와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분묘유적의 하한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로 편년됐다.

남원 입암리 등 섬진강 중류지역에 4개소의 말무덤을 남긴 마한세력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된 이후 남원 사석리 일대로 통합된 것 같다. 남원 사석리

蹟開發研究院, 1995 ; 정재윤, 「백제의 섬진강유역 진출」, 『백제는 언제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나』, 한성백제박물관, 2021, 37~56쪽.

55) 『日本書紀』新功紀 50년(370) 2월에 倭가 多沙城을 韓에 돌려주고 왕복하는 길의驛으로 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기사이다.

8호분은 8기의 말무덤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봉분의 규모도 가장 크다. 동시에 말무덤의 성격과 분묘유적의 하한을 말해준다. 남원 사석리는 백제의 진출로 마한세력의 통합 이후에는 백제 지방 지배의 거점이었음을 반증한다. 엄밀히 해석하면 왕자와 왕족이 지방관으로 임명된 담로제 혹은 왕후제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웅진기 전북 동부에서 백제의 중앙 묘제인 횡혈식 석실분이 한곳에 무리지어 있는 곳은 남원 사석리가 유일하다. 더욱이 봉분의 직경 10m 내외되는 8기의 대형고분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상한이 웅진기 이전으로 올라갈 개연성도 충분하다. 남원 사석리는 웅진기까지 섬진강유역에서 최대의 정치 중심지였다. 마한부터 웅진기까지 연속적인 발전과정을 보여준 곳은 섬진강유역에서 남원 사석리 고분군이 유일하다.

가야계 산성 및 봉화에 근거를 두고 문헌 속 자탄은 대사에서 멀지 않은 순창군 적성면·유등면⁵⁶⁾ 일대로, 이열비는 오수천을 따라 순창봉화로가 선상으로 이어진 임실군 삼계면·오수면⁵⁷⁾ 일대로, 마수비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반파국이 백제와 국경선을 이룬 임실군 관촌면⁵⁸⁾ 일대로, 마차해는 진안고원에서 산성 및 봉화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진안군 주천면⁵⁹⁾ 일대로, 추봉은 웅진천도 이후 반파국이 진출하여 가야 봉화를 집중 배치했던 충남 금산군 일대로 비정⁶⁰⁾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섬진강유역은 기문국이 있었던 곳으로 본 견해가 큰 지지를 받고 있다.⁶¹⁾ 동시에 대가야의 섬진강 루트⁶²⁾에 근거를 두고 대가야의 변방 혹은 지방으로만 인식됐다. 그렇지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서 경남 하동군 하동읍을 갈 때 아니면 하동읍에서 대가야읍을 방문할 때 섬진강 루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루트는 백두대간 등 장애요인이 많고 거리가 너무

56) 순창봉화로는 시작되는 순창 오교리 산성을 중심으로 그 부근에 태자, 화탄, 월탄마을이 있다.

57)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방축골과 10여 개소의 산성 및 봉화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58)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방현산성과 공수봉, 방수리 幕洞, 城尾山城, 防尾山, 배미산 등이 있다.

59)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성을 중심으로 그 부근에 산성 및 봉화가 집중 배치되어 있다.

60) 문헌에 등장하는 지명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향후 논문으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61) 그러나 섬진강유역에서는 가야 소국 존재의 척도이자 바로미터인 가야 고총이 발견되지 않았다(김낙중, 『섬진강유역의 백제와 가야 고고학 자료』, 『백제는 언제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나』, 한성백제박물관, 2021, 1~36쪽.).

62)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74~75쪽.

멀어 지금도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다. 오히려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을 출발하여 경남 합천군 옥전·삼가고분군, 산청군 단성면을 경유하여 경남 하동군 하동읍까지 이어진 옛길이 훨씬 더 용이하다.

문헌에 반과국이 일본을 대비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전북 동부 산성 및 봉화의 분포망을 근거로 영산강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마한도 여기에 포함될 것⁶³⁾으로 추측된다. 2019년 복원된 임실봉화로와 순창봉화로는 다른 봉화들과 달리 봉화대를 거칠고 조잡하게 쌓았다. 섬진강유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봉화대들은 514년 반과국이 백제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쌓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영산강유역의 마한세력이 3년 전쟁에 긴급 참전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그런가 하면 문헌에 반과국이 국경을 맞댄 신라와도 서로 적대 관계였다고 전한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자 신라⁶⁴⁾는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요사이 대규모 철산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무주군 동북부 일대를 편입시켰다.⁶⁵⁾ 무주군에서 반과국과 신라의 국경선이 형성됐음을 알 수 있다. 나제통문을 경계로 그 동쪽에 신라 무산현이 설치된 무주군 무풍면이 위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개소의 가야 봉화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제통문 서쪽 무주군 무주읍은 백제의 적천현으로 덕유산 일대에 대규모 제철유적과 가야 봉화가 공존한다. 당시 반과국이 무주군 일대 철산지의 관할권을 두고 신라와 치열하게 전개된 급박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문헌의 내용을 유적과 유물로 거의 충족시켜 주는 곳이 무주 대차리 고분군이다.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오갔던 웅진기 사행로가 금강을 건너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부근에 무주 대차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무주 대차리 고분군에서 11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됐는데, 무덤은 바다에 시상석을 갖춘 9기와 시상석이 없는 것이 함께 공존한다. 전자는 유구의 속성이 옥천 금구리, 상주 헌신동·병성동 신라고분과 흡사하다. 가야 고분이 일부 포함되어 신라보다 앞서서 반과국이 무주군 일대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고배, 대부장경호 등 신라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상환은 대체로 5세기 말엽 늦은 시기로 편년됐다.⁶⁶⁾

63) 일본의 파병 및 마한의 이탈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자 한다.

64)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65) 가야사 국정과제로 무주군에서 6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처음 학계에 보고됐다. 백두대간을 따라 물이 풍부하고 평탄지가 발달한 계곡에 제철유적이 위치한다. 덕유산 향적봉을 중심으로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사방에 골고루 산재해 그 밀집도가 탁월하다.

66)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무주 대차리 고분군』, 무주군, 2020.

이처럼 금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위치한 무주군으로 신라의 서쪽 진출을 유구와 유물로 방증해 주었다. 신라 무산현 행정 치소 무주군 무풍면에서도 신라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다시 또 신라의 서진(西進)을 뒷받침해 주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엄연히 나제동맹을 맺은 상태였지만 5세기 4/4분기부터 백두대간을 넘어 진안고원 내 무주군으로 진출이 유적과 유물로 입증된 것이다. 무주군 동북부를 문헌의 신라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2020년 무주 노고산 봉화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 금강과 인접된 남쪽 산봉우리 정상부에 위치한 석축형 봉화대로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장수군 장계분지로 향하는 옛길이 한눈에 잘 조망된다. 백제와의 국경선 금강을 감시하던 당시 레이더 기지였다. 봉화대는 그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성벽을 한 바퀴 돌렀다. 남원 봉화산, 임실 봉화산 등 가야 봉화대 출토품과 유물의 속성이 똑같은 삼국시대 토기편만 출토됐다.⁶⁷⁾

금강 남쪽 무주 노고산 봉화는 국경선에 배치됐던 반파국 봉화대의 속성이 강하다. 무주 주계고성이 대차리 부근에 있는데, 신라가 산성의 터를 처음 담은 것⁶⁸⁾으로 추정된다. 2021년 이른 봄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주계고성 남쪽 산봉우리 반파국 산성에서 봉화시설이 발견됐다.⁶⁹⁾ 무주 주계고성 신라군을 감시하기 위해 반파국이 구축한 방어 시설이다. 이를 종합하면 반파국과 백제, 신라의 국경선이 금강과 남대천을 따라 형성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백제가 저미문귀 장군, 주리즉이 장군을 수적신압산[백제분기에는 왜의 의사이마기미라고 한다]에 딸려 보내 오경박사 단양이를 바쳤다. 별도로 아뢰길 “반파국이 신의 나라 기문 땅을 약탈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천은을 베풀어 본래의 속한 곳으로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일본서기』 계체천황 7년 6월조).

라고 기록되어 있다.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기문국⁷⁰⁾이 반파국에 병합됐음을 알 수 있다. 반파국 영역에서 가야

67)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무주 노고산 봉화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무주군, 2020.

68) 종래에 백제 적천현 치소성으로 알려졌지만 현지조사 때 신라토기가 수습되어, 백제보다 앞서서 무주군으로 진출했던 신라에 의해 초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69)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싸리재 동쪽 산봉우리에 동서로 긴 장타원형의 성벽을 두르고 양쪽에 봉화대를 설치했는데, 봉화대의 축조기법이 다른 가야 봉화들과 똑같다.

고층으로 가야 정치체의 존재가 입증된 곳은 운봉고원이 유일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봉봉화로가 문헌의 내용을 고고 자료로 뒷받침해 주었다. 남원 봉화산 등 운봉봉화로에 토축형과 석축형 봉화대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석혼축형 봉화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섬진강유역 봉화대와 함께 봉화대의 축조기법이 상당히 조잡해 급히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운봉고원에서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기문국⁷¹⁾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처음 등장해 6세기 초엽까지 존속했다. 백두대간이 난공불락의 철옹성 역할을 해 주었고, 백제와 가야의 문물교류의 관문, 대규모 철산개발과 교역 네트워크를 통한 철의 생산⁷²⁾과 유통이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말(몰)무덤과 가야 고층, 최상급의 위세품⁷³⁾이 출토됨으로써 기문국의 존재를 고고 자료로 증명했다.

운봉고원 내 가야 고층은 강성했던 기문국의 국력과 그 존속 기간을 암시해 주는 고고학 증거물이다.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 가야 소국들이 니켈이 함유된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기문국에 보냈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 묘제가 가야 고층에서 처음 확인됐고, 6세기 중엽 경에는 신라에 정치적으로 편입됐다.

남원 월산리·청계리·유곡리·두락리에 봉분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초대형급 가야 고층도 포함되어 기문국의 발전상을 뽐냈다. 운봉고원은 가야 영역에서 최초로 그 존재를 드러낸 철제초두를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철기류가 나온 ‘철기박물관’이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온 금은상감 환두대도편은 당시 운봉고원이 철의 생산부터 주조 기술까지 응축된 철의 테크노벨리였음을 방증했다.

그런데 가야 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가이다. 충남 금산군과 전북 완주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남원시 운봉읍에서 시작된 여러 갈래 봉화로가 모두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만난다. 조

70) 종래에 남강유역의 가야 세력 혹은 운봉고원 가야의통 국가 단계의 정치체, 운봉지역 가야, 운봉 가야로 소개됐는데, 이 글에서는 고고학 자료를 문헌에 접목시켜 기문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71) 김재홍,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 기문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2020, 75~107쪽.

72)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운봉고원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40여 개소에 달한다.

73) 김재홍,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그 위상』,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2018, 26~45쪽.

선시대 때 전국의 5대 봉수로가 서울 남산에서 합쳐지는 것과 똑같다. 전북 동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봉화는 봉후(화)제를 운영한 가야 소국의 존재를 고고학 자료로 입증했다.

현지조사 때 봉화에서 수습된 유물의 조합상은 봉화의 설치 시기와 설치 주체를 추정하는데 결정적 기준이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기보다 시기가 늦은 유물이 봉화에서 수습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옹기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내지봉수가 아닌 가야 봉화였음을 유물로 다시 또 증명했다.

2014년 처음 시작된 장수 영취산·봉화산·원수봉 봉화 학술발굴에서 그 운영 시기가 6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속속들이 밝혀졌다. 모두 3개소의 석축형 봉화대는 장방형으로 쌓은 봉화대의 축조기법에서도 긴밀한 연관성을 보였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정치적인 불안에 빠졌을 때 백제 영역으로 진출한 반파국이 백제의 동향을 살피고 당시 제철유적의 방비를 위해 봉화를 운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북 동부에서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성 내 봉화시설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취합했던 것 같다. 진안고원 내 장수군 장계분지는 전북가야 최대의 정치 중심지였다. 더욱이 봉화대에서 수습된 유물의 속성이 장수 삼봉리·삼고리 등 분묘유적 출토품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장수가야를 문헌의 반파국으로 비정했다.⁷⁴⁾ 아직까지 전형적인 대가야 양식 가야토기는 출토되지 않았다.

가야 소국 반파국을 비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절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삼국시대 가야 봉화가 발견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복원된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에 가야 고총이 밀집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는 문헌의 내용도 중요하다. 신라는 반파국 위치를 비정하는데 으뜸 바로미터이다.

문헌의 절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주는 곳이 장수군 장계분지에 지역적인 기반은 둔 가야 계통의 정치체이다. 반파국의 위치 비정과 관련된 문헌의 내용을 고고 자료로 모두 충족시켜 주고 있는 유일한 가야의 정치체이다. 그럼

74) 곽장근,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61~86쪽.

에도 불구하고 가야사 연구에서 장수가야, 즉 반파국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백두대간 서쪽 가야 정치체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야사 복원이 완료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안고원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반파국은 4세기 말엽 늦은 시기에 등장해 가야의 소국으로 발전하다가 6세기 초엽 늦은 시기 백제에 의해 멸망됐다.⁷⁵⁾ 금남호남정맥이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했던 교역망, 대규모 구리와 철산 개발이 크게 작용했다. 이를 배경으로 장수 노곡리·장계리·호덕리 마한의 지배자 분구묘가 연속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진안고원 장수군에만 조영됐다.⁷⁶⁾

동시에 전북 동부에서 복원된 여러 갈래 가야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로 밝혀졌기 때문에 가야 정치체의 존재도 입증됐다. 백두대간 서쪽에서 유일하게 가야의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반파국은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를 남긴 봉화왕국이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가야 고총과 봉화, 제철유적이 함께 공존하는 곳은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금강 최상류 전북 장수군이 유일하다.

그런데 『양직공도』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린 반파국이 두 차례의 사비회의에 등장하지 않는다. 『일본서기』 흠명기 2년(541) 4월조, 5년(544) 11월조에 사비회의에 참석한 가야의 소국들이 열거되어 있는데,⁷⁷⁾ 반파국은 두 차례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기문과 대사를 두고 3년 전쟁에서 백제에 패한 반파국은 사비회의 이전 백제에 의해 멸망⁷⁸⁾됐음을 말해준다. 그럴 가능성은 유적과 유물의 특징으로도 명확하게 입증된다.

가야의 수장층 분묘유적에서 횡혈식, 횡구식 등 백제 묘제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반파국이 유일하다. 백제 묘제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도 장축을 산줄기 방향과 일치시킨 유구의 속성을 제외하면 수혈식은 그대로 지속된다. 장수 무농리, 장수 동촌리 등 백제 고분군은 가야 고총군과 상당한 거리를 둔 상태로 남쪽 기슭에 입지를 두었다. 아직은 백제 분묘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이 시작되지 않아 안타깝다.

이렇듯 반파국의 가야 중대형 고총의 매장 시설에서 횡구식, 횡혈식 등 백

75) 전상학,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 43, 湖南考古學會, 2013, 35~66쪽.

76) 최완규,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2018, 4~24쪽.

77) 1차 사비회의에는 安羅·加羅·卒麻·散半奚·多羅·斯二岐·子他, 2차 회의 때는 안라·가라·졸마·사이기·산반해·다라·자타·久嗟 등의 가야의 소국들이 참석했다. 『양직공도』의 반파국과 상기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미 백제에 의해 멸망 혹은 편입됐음을 말해준다.

78) 521년부터 538년 사이 반파국이 백제에 의해 멸망된 것으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제 묘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장수 삼고리 등 하위계층 분묘유적에서는 삼족토기·횡병·배부병 등 백제토기가 갑자기 부상되기 시작한다. 반파국 분묘유적에서 백제 묘제가 일체 확인되지 않고 백제토기가 등장한다. 가야 소국 반파국이 백제와 당시 적대적인 관계였음을 살필 수 있는 대목으로 반파국의 멸망 시기를 웅진기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파국은 나라의 이름에서 의문점이 적지 않다. 『일본서기』의 반파(伴跛)는 ‘함께 기대서다’ 혹은 ‘뒤를 따라가는 절뚝발이’라는 뜻과 『양직공도』의 반파(叛波)에는 ‘반란의 물결’이라는 악의적인 의미가 나라의 이름에 담겨있다.⁷⁹⁾ 당시 반파국에 대한 백제의 경멸적이고 최고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는데, 당시 고대국가 백제에 대항했던 반파국의 패착은 반파국의 몰락을 자초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다름 아닌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꽤 오랫동안 정치적인 불안에 빠졌을 때 백제의 국난을 함께 나누지 않고 오히려 백제 영역으로 진출하여 백제의 철산지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 동부 백제의 철산지가 거의 반파국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백제는 자국의 세력권에서 이탈해 간 백해 세력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설정하여 ‘반(叛)’자를 넣고 ‘해(海)’자는 뜻을 취하여 ‘파(波)’로 변개한 것으로 본 견해⁸⁰⁾가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런가 하면 고고학으로도 반파국의 도읍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반파국의 도읍으로 비정된 장수군 장계분지의 주산은 성주산(聖主山)으로 장수군 장계면 소재지 동북쪽 깃대봉을 가리킨다. 이 산 남쪽 기슭 말단부에 관아터가 있는데 반파국의 왕궁 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 일대로 자생 풍수에서도 혈처를 이룬다. 성주산 서남쪽 태봉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이 반달모양을 이룬다.

백두대간 영취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장수군 장계분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장계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반파국의 추정 왕궁 터와 남쪽에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현실 세계의 왕궁과 사후 세계의 고총군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반파국의 추정 왕궁 터 동남쪽 산봉우리에 장수 삼봉리 산성이 있는데, 전북 동부에서 복원된 여러 갈래 봉화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다. 테피식 산성 내 정상부에서 장방형의 봉화시설이 발견됐

79) 박중환, 『양직공도 방소국을 통해 본 백제의 대외관』, 『중국 양직공도 마한제국』, 마한연구원, 2018, 65~92쪽.

80) 이도학, 앞의 논문, 2020, 8~13쪽. 이도학,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파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2020, 45~74쪽.

는데, 그 임무와 역할이 막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가야 봉화 또는 조선 봉수는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영역과 국가의 국력을 대변해 준다. 동시에 국가의 운명을 도맡은 통신유적의 백미이다. 우리나라에서 봉화산이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장수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 동부이다. 1990년대부터 가야 봉화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가야사 국정과제로 가야 봉화망과 그 역사성이 고증됐다. 조선시대 봉수제와 확연히 다른 가야 봉화제로 새롭게 밝혀져 봉수의 연대를 봉화대로, 거화시설 혹은 발화시설을 봉화시설 또는 봉화구라는 새로운 이름도 지었다.

문헌에 반파국은 봉후(화)를 이용하여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르고 신라 변방에 커다란 피해를 준 가야 소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반파국은 고대국가 백제와 3년 전쟁을 신라와 적대관계를 야기했다. 그만큼 가야사에서 반파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하고 특별하다. 가야사 국정과제로 전북 동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20여 개소의 봉화망에 근거를 두고 전북가야의 영역도 설정됐다.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을 문헌에 접목시켜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를 반파국으로 비정했다. 문헌의 내용을 유적과 유물로 명약관화하게 확증해 주었다.

『삼국사기』에 가야가 초대를 받지 못해 달리 ‘수수께끼 왕국’ 혹은 ‘비운의 왕국’으로 회자된다. 가야 소국 반파국은 중국 및 일본 당대 기록에 모두 다 등장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520년 경 지은 『양직공도』에 첫 번째 그 이름을 올려 반파국의 국력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 봉화 왕국 반파국이 등장하지 않아 적지 않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렇게 본다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금관가야와 대가야, 소가야 등 여섯 가야 소국의 국명은 중국 및 일본 문헌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가야사는 유적과 유물로 쓴다고 한다.

1500년 전 반파국은 가야 소국으로 문헌에 등장하는데, 문헌에서 요구하는 반파국의 정체성(identity)은 봉후(화)이다. 엄밀히 설명하면 가야 봉화는 반파국의 아이콘(icon)이자 타임캡슐이다. 1990년대 한 개소의 가야 봉화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도움을 준 대가야를 반파국으로 비

정한 견해⁸¹⁾가 정설로써 줄곧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 동쪽 영남지방에서는 한 개소의 가야 봉화가 발견되지 않아 학계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가야 봉화대 발굴에서 대가야 양식 토기가 아닌 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가야토기만 출토되어 더욱 그렇다.

전북가야의 영역 설정은 가야 봉화망에 그 근거를 두었다. 지금까지 여덟 갈래 봉화로는 복원됐는데, 모든 봉화로의 출발지를 연결하면 반파국의 국경선이 완성된다. 반파국 영역은 백두대간 산줄기가 동쪽, 섬진강이 서쪽 경계를 형성하고 충남 금산군이 북쪽 국경을 이룬다.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반파국은 백제의 정치적인 불안을 틈타 백제 영역으로 진출을 강행했다. 당시 반파국이 섬진강과 만경강유역으로 진출했음을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망이 문헌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었다. 가야 봉화망은 반파국과 백제, 신라 역학관계의 전개 과정⁸²⁾을 알려준다.

전북가야의 영역에서만 문헌 속 가야 봉화가 그 존재를 드러냈다. 가야 봉화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다. 가야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다. 장수 봉화산 봉화 등 7개소의 가야 봉화가 장계분지를 병풍처럼 감싼 산자락 정상부에 위치한다. 장수 삼봉리 산성 내 봉화시설이 모든 봉화로의 정보를 하나로 취합했던 것 같다. 2021년 원형의 집수시설과 그 내부에서 반파국에서 만든 가야토기편이 나와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선시대 다섯 갈래 봉화로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합하는 서울 목덕산과 같은 곳으로 그 북쪽에 반파국 추정 왕궁 터가 위치한다.

장수군 장계분지는 반파국 도읍지였다. 장계분지 동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성주산으로 반파국 도읍지 주산으로 추정된다. 성주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자락에 태봉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 왕비의 태를 묻었다고 전한다. 태봉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이 반달모양으로 삼봉리 탑동마을을 휘감아 최고의 혈처를 연출했는데, 그곳이 바로 반파국 추정 왕궁 터이다. 후백제 때 사찰을 지어 반파국의 추정 왕궁 터와 후백제 개안사지가 서로 중첩되어 익산 왕궁리 유적을 쫓 빼달았다. 향후 반파국 왕궁 터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발)굴조사가 요청된다.⁸³⁾

81)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114~136쪽. 朱甫暎, 『새로운 大伽耶史의 정립을 위하여』, 『嶺南學』 제1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42~45쪽.

82) 최완규, 『전북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역학관계』,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2020, 5~43쪽.

83) 2022년 이른 봄 깊이 5m의 관측층과 석심 유구가 확인되어 반파국 왕궁 터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 고분군은 반파국 수장층 혹은 지배층이 잠든 분묘유적이다. 현재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2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는데, 본래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 일제강점기 오프라세이지가 땅을 매입한 뒤 건물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여 가야 고총을 대부분 도굴했다고 한다. 가야 고총의 장벽을 대부분 드러낼 정도로 도굴의 피해가 가장 극심하다.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 고분군과 추정 왕궁 터, 가야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위치함으로써 장수군 장계분지가 반파국 도읍지였음을 방증해 주었다.

본래 반파국의 영역은 금강유역의 장수군과 진안군 상전면·동향면·안천면, 무주군 무주읍·안성면·적상면·부남면·설천면으로 금강에서 백제와 남대천에서 신라와 국경선이 형성됐다.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한동안 정치 불안에 빠지자 백제 영역인 진안군과 충남군 일대로 진출했고, 최전성기에는 금남정맥을 넘어 완주군 동북부까지 진출하여 금남정맥에서 백제와 국경을 마주했다.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 대사를 두고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르면서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등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여 섬진강유역에도 가야 봉화망을 구축했다. 반파국의 섬진강유역 진출을 가야 봉화망으로 증명해 주었다.

현재까지 세 가지 유형의 봉화대가 확인됐다. 하나는 석축형으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깎돌로 허튼층쌓기로 봉화대를 만들었는데, 벽석의 축조기법은 처음에 성기고 조잡하다가 후대에 판석형 할석으로 정교하게 쌓았다. 다른 하나는 암반형으로 자연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고 불을 피우기 위한 원형 혹은 전원후방형 봉화구를 다시 파냈다. 또 다른 하나는 토축형으로 흙을 쌓아 장방형 봉화대를 만들고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을 두었다. 봉화대의 축조기법이 서로 다른 것은 축조 시기의 선후 관계를 말해주고 석축형이 가장 앞서고 암반형과 토축형이 늦다. 만경강유역 가야 봉화대는 대부분 석축형으로 그 축조기법도 가장 정교하다.

본래 반파국 영역에 배치된 봉화대는 대부분 석축형으로 거칠고 조잡하게 쌓았다. 가야 봉화가 국경선과 제철유적이 많은 철산지에 집중 배치되어 국경의 감시와 제철유적의 방비에 큰 목적을 두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백제 영역으로 진출 이후 쌓은 가야 봉화대는 대부분 석축형으로 상당히 정교하게 쌓았으며, 백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장수군으로 향하는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섬진강유역 가야 봉화대는 전쟁을 치르면서 쌓아 토축형과 암반형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일부 석축형은 아주 거칠고 조잡하게 쌓았다. 운봉

봉화로도 섬진강유역과 마찬가지로 봉화대의 축조기법이 정교하지 않다.

1500년 전 반파국이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국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예나 지금이나 국력의 원천은 철이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이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유적⁸⁴⁾이다. 장수군은 또한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가장 많은 제철유적을 학계에 알렸다. 반파국 등 전북가야의 영역에서만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250여 개소에 달한다. 반파국이 철의 생산과 유통으로 부국강병을 이룩한 뒤 가야 봉화망을 구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파국의 가야 봉화와 제철유적은 서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싶다.

끝으로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은 제련부터 정련, 주조까지 모두 담아낸 일관 제철소이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 제철유적으로 밝혀져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직은 반파국과 제철유적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⁸⁵⁾ 반파국 가야 고층에서 단야구와 편자를 중심으로 마구류, 무구류 등 지역색이 강한 철기류가 출토되어 그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반파국이 가야 봉화 왕국으로 융성하는데 전북 동부 철의 생산과 유통이 핵심적인 공헌을 했을 것으로 유추해 두고자 한다. 전북 동부 제철유적의 역사성을 고증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원해 본다.

논문접수일: 2022. 02. 28. / 심사개시일: 2022. 03. 28. / 게재확정일: 2022. 04. 06.

- 84) 柳哲, 「全北地方 墓制에 대한 小考」, 『湖南考古學報』 3, 湖南考古學會, 1995, 29~74쪽.
한수영,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 - 남양리 유적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33~47쪽.
- 85) 유영춘,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호남고고학보』 제57집, 호남고고학회, 2017, 38~75쪽 ;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2018, 64~88쪽.

참고문헌

- 강원중, 2007, 「남원 운봉지역의 고대 관방체계」, 『호남고고학보』 27권, 38-70쪽.
- 곽장근, 2020,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과국 비정」, 『전북학연구』 2집, 1-34쪽.
- 곽장근, 2021,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8, 『전북 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전북연구원.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 『전북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 현황조사』, 전라북도.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0, 『무주 대차리 고분군』, 무주군.
-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2, 『長水郡의 山城과 烽燧』, 長水文化院.
-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6,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장수군·문화재청.
-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 김낙중, 2021, 「섬진강유역의 백제와 가야 고고학 자료」, 『백제는 언제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나』, 한성백제박물관.
- 김재홍, 2018,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그 위상」, 『호남고고학보』 59권, 26-45쪽.
- 김재홍, 2020,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 기문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 김주홍, 2021, 「전북 동부 지역의 봉화·봉수」, 『백제와 가야의 경계와 접점』, 백제학회·한성백제박물관.
- 박중환, 2018, 「양직공도 방소국을 통해 본 백제의 대외관」, 『중국 양직공도 마한제국』, 마한연구원.
- 유영춘, 2015,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호남고고학보』 51집, 86-120쪽.
- 유영춘, 2017,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호남고고학보』 57집, 38-75쪽.
- 유영춘, 2018,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59집, 64-89쪽.
- 柳哲, 1995, 「全北地方 墓制에 대한 小考」, 『湖南考古學報』 3집, 29-74쪽.
- 이남규 외, 2013, 『한국 고대 철기문화 계통과 발전양상의 역사적 의미』, 한국연구재단.

- 이남규, 2011, 「제철유적 조사 연구상의 주요 성과와 과제」, 『최신 동북아시아 고대 제철유적의 발굴성과와 그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원.
- 李道學, 2019,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집, 47-82쪽.
- 이도학, 2020a,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연구』 2권, 35-75쪽.
- 이도학, 2020b,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파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 李永植, 1995,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 7권.
- 이은정, 2021, 「임실 봉화산 봉화 조사현황 및 성과」,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전상학, 2013,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 43권, 35-66쪽.
- 전상학, 2021, 「임실 봉화산 봉화 출토유물 검토」,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全榮來, 2003, 『全北古代山城調查報告書』, 全羅北道·韓西古代學研究所.
- 정재윤, 2021, 「백제의 섬진강유역 진출」, 『백제는 언제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나』, 한성백제박물관.
- 조동원, 김대식, 이경록, 이상국, 홍기표, 2005, 『고려도경』, 황소자리.
- 조명일, 2004,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분포양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남고고학회.
- 조명일, 2012,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湖南考古學報』 41권, 67-90쪽.
- 조명일, 2015, 「서해지역 봉수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도서문화』 45집, 63-100쪽.
- 조명일, 2018,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59집, 90-107쪽.
- 조명일, 2021,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구조」,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朱甫暎, 2008, 「새로운 大伽耶史의 정립을 위하여」, 『嶺南學』 13호.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최완규, 2018,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 59권, 4-24쪽.
- 최완규, 2020, 「전북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역학관계」,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 최인선, 2021,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만과 그 의미에 대한 토론문」,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한수영, 2016,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 - 남양리 유적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 今西龍, 1922, 「己汶伴跋考」,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 田中俊明, 1992,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Abstract>

The Beacon Fire Network of Eastern Gaya of Jeonbuk and Its Meaning

Kwak Chang-keun *

The state of Banpa appears in literature as a small state that fought in a three-year war with Baekje and causing huge damages to the frontier areas of Silla using beacon fires. The structure of Gaya beacon fires and its beacon fire systems were restored to a significant level using archaeological data accumulated in the eastern Jeonbuk region. Originally, the area of Banpa included Jangsu-gun in the Geumgang River Basin area, and Ancheon-myeon and Donghyang-myeon of Jinan-gun, and Muju-eup, Anseong-myeon, Jeoskang-myeon, Bunam-myeon, and Seolcheon-myeon of Muju-gun, and it shared borders with Baekje at Geumgang River and with Silla at Namdaecheon River. When Baekje fell into political instability for a while after moving its capital to Ungjin, it entered the Baekje territories at Jinan-gun and Chungnam-gun, and at its peak, it spread beyond the Geumnam Range to the northeastern parts of Wanju-gun to form a border with Baekje at the Geumnam Range. For three years since 513, it wages a three-year war against Baekje being fitted with military zones and ambassadors as it entered the Seomjingang River Basin at Namwon-si, Imsil-gun, and Sunchang-gun, while also building Gaya beacon fire networks even in the Seomjingang River Basin area. The Gaya beacon fire network provided the support necessary for Banpa to enter the Seomjingang River Basin. It is intended to include the Gaya beacon fire network of eastern Jeonbuk in literature to determine Jangsu Gaya based in the Geumgang River upstream area as the state of Banpa.

Key Words : Baekje, Silla, Banpa, Jangsu Gaya, Gaya beacon fires, Beacon fire systems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History & Philosophy[History Major]

